

# 전남 고령화 탓 치매 사망 가장 많아

■ 통계청 지역별 5년간 사망원인 분석해보니

## 전북, 퇴행성·뇌혈관 질환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과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치매'는 전남이, '추락'은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신호(제39권 제2호)에 실린 '사망원인과 지역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5년(2008~2012년)간 사망신고서 127만225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암(악성 신생물)과 뇌혈관 질환이었지만 지역별로는 사망 원인에 차이를 보였다.

치매가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전남이 가장 많았으며, 알츠하이머병이 포함된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전남과 전북이 고령화비율이 높은

탓에 정신장애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숨지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추락에 의한 사망은 광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당뇨병과 자살은 경기도에서 가장 빈발했으며, 이 두 원인은 모두 음주율과 깊은 관계를 보였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비롯한 심장병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높았으며, 감기나 폐렴 등 호흡기계통 질환에 따른 사망은 충북·전북이 많았다.

노쇠(자연사)로 인한 사망은 충북이 가장 높았고, 부산이 가장 낮았다. 이 밖에 간 질환은 부산, 신부전은 대전, 결핵

은 경북이 각각 가장 높았다.

암은 소화기관의 경우 부산이 가장 높았고, 호흡기 및 흉곽 내 기관은 경북, 여성생식기관·비뇨·림프·조혈 계통의 암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원인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관과 생식기관 암의 발생은 음주율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민간소비가 많을수록 높았다. 인플루엔자 및 폐렴은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만성하기도 질환은 일교차가 클수록 높았다. 간 질환은 음주 및 흡연율과 이혼율이 높을수록 많았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독도 도발 중단 촉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대규모 광기대회가 23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등 1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2일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에서 드러낸 독도 침탈 야욕을 분쇄하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 정신 못차린 '광주테크노파크'

황령·비리 직원 징계 수위 낮춰...광주시 "고강도 재감사"

광주시가 감사로 적발한 비위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징계 지시(광주일보 2월 16일 2면)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재)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해 고강도의 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재단 법인차량을 임의로 매각해 수백만원의 대금을 가로채고, 수천만원대의 재단 물품을 분실한 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추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시는 최근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를 벌여 법인 차량을 임의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한 광주테크노파크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파면과 징계 등 중징계를 테크노파크에 요구했다. 또 법인 홍보기념품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업체 알선 비리 등이 적발된 2명은 경징계 요구를 했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지부는 이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충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차량 대금 횡령 건의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

출한 상태다.

하지만 광주테크노파크는 자체 징계위를 열어 차량 대금 630여만원을 횡령, 파면이 요구된 직원은 소청 등을 거쳐 징계 3개월 조치를 했다.

또 직원 근무복 부당 수의계약, 업무용 물품 분실, 직원 전형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부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2명은 감봉, 1명은 사직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경징계 요구를 받은 2명은 각각 3개월 감봉과 훈계 조치를 했다.

시가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거쳐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 처리가 원장 공석 상태인 직무대리 체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직원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가 시의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태 등에 대해 재감사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재단 예산을 횡령한 직원의 파면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면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 잘못된 자체 징계 행태 등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고총량제 대응·신문엑스포 논의

한국신문협회 회장단 회의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중앙일보 사장) 회장단은 23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국제대학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신문협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회장과 김여송(광주일보 사장) 부회장, 김기웅(한국경제신문 사장) 부회장, 장대환(매일경제 사장) 고문, 허승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이날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인터넷 포털에 대한 공동 대응 방



김여송 부회장

안을 토의했다. 오는 5월 중순 '신문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방법 등에서 제한하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해왔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 대표 일간지 및 통신사 47개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하다. /최권일기자 cki@

# 해남 '한눈에 반한 쌀' 영국 수출

옥천농협 5t 계약...4월부터 한인마트서 판매

전국 최고 쌀로 뽑힌 해남 대표 쌀 '한눈에 반한 쌀'이 영국에 진출한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옥천농협이 국내 무역대행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 한눈에 반한 쌀 3t과 땅끝 햇살 2t을 영국으로 수출한다. 오는 26일 부산항에서 선적되는 이 쌀은 4월 중 런던 소재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H매장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쌀은 매장 VIP 고객을 대상으로 10kg 1포대당 8만~9만원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매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시식미가 호응을 받으면서 판매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H매장은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내에도 한

인마트를 운영하는 업체다. 영국 내 소비자 반응에 따라 유럽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옥천농협은 24일 옥천농협RPC에서 이낙연 전남지사, 박철환 해남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박철환 군수는 "영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쌀과 함께 김치, 김 등 농수특산물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눈에 반한 쌀은 지난 2003년부터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9회 선정됐다. 2005년에는 전국 최초 러브미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 여수 원도심에 '버스커 거리' 조성

'문화특화 관광지' 선정...5년간 43억 투입 콘텐츠 사업

최근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수에 또 하나의 명물이 등장한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하고 관광지가 밀집한 여수지역 원도심이 '문화특화 관광지'로 조성돼 '관광 여수'의 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돼 원도심 일대에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 동안 43억5000만원의 국비를 들여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경관이 수려한 원도심 일대를 활기찬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꿀 계획이다.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밤바다 주변

경관조명을 아우른 야경과 최근 개통한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낭만버스커 여수밤바다'라는 주제로 원도심 일원에서 관광객이 집중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예술가(버스커)가 펼치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커를 공개 모집한다.

국내외를 무대로 음악, 마임, 행위예술, 댄스, 비보잉, 마술, 저글링, 애크리배트, 마살아트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버스커를 모집해 구역별로 특화된 거리공연을 열기로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 라식 LASIK
- 라섹 LASEK
- ICL 안내렌즈삽입술
-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운암동 광면  
밝은광주안과 의원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